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재물보험료, 기후변화 손실 확대로 10년 내 두 배 전망

- 영국보험협회(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: ABI)는 기후변화가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, 멀지 않은 장래에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며, 현 수준의 담보로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없을 것이고, 나아가 보험에 의한 재해담보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경고함.
 - 현재 유럽의 보험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손실예측은 2005년의 피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되었다고 평가함.
 - 2009년 3월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최악의 기상악화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미래의 기후는 급격히 악화되어 손실규모는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임.
- Swiss Re는 2008년을 역사상 최악의 재난(홍수, 폭풍우, 허리케인, 인재)이 발생한 해로 간주하고, 경제적 손실은 2,690억 달러이고(2007년의 3배, 2006년의 5배), 이 중에서 재물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은 520억 달러이며, 폭풍우로 인한 보험금은 44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함.
 - 2008년 유럽에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는 Emma(초속 95마일의 겨울 폭풍우)로서 총 경제적 손실은 20억 달러이고, 지급보험금은 15억 달러에 이름.
 - 유럽의 제조업 경우 중국과 인도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지역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최고 위험발생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.
 - 2050년에는 중국의 대부분 생산(80%)이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.
- 기후변화와 보험 간 관계 연구의 권위자인 Andrew Dlugo-lecki(East Anglia 대학)박사는 기후변화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면 10년 내에 보험료는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함.
 - 재난위험 평가 회사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 조만간 10%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, 2009년 말까지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.
- ABI는 현재 유럽이 자연재해 보험담보가 불가능한 도로나 다리에 대해 10억 유로의 기금(EU Solidarity Fund)을 마련하고 있으나, 2030년에는 홍수 하나로 인한 예상 손실이 1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여 동 기금의 증액이 요청된다고 보고함.

(The Sunday Times 3/22)